

인천시 환자들의 병원별 진료권을 규명함으로써, 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의료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병원기록에 의한 환자원조사(患者源調査)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9개 종합병원 중 2개의 특수병원과 기록이 미비한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조사가 가능했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1983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당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병원기록에서 주소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인천시 거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표본은 3,579명이었다.

1. 구(區)에 따라 친화도(親化度, Relevance Index)가 50%가 넘는 병원이 4개 있었다. (51.5%, 64.3%, 42.1%, 37.1%). 친화도가 40% 이하였다는 서울지역보고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고 병원선택에 있어서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료대상인구가 가장 많은 병원은, A₁병원으로 인천시 전체인구의 31%인 378,791명을 담당하고 다음이 21.8%인 266,394명의 C 병원이다.

3. A₁병원은 북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높은 친화도를 보였고(32.8%, 51.5%, 64.3%)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북구를 제외하고는 40.5%~70.7로 높은 친화력을 보였다. 타병원에 비해 지역에 따른 친화도가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인천지역에서 3차병원을 설정할 경우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4. 북구의 B₁병원은 북구환자에게 있어서 친화도가 높았는데(37.1%) 입원시에는 약간 떨어졌고(25.7%) 지역병원으로서의 특성이 강했다.

5. 북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인 B₃병원은 북구환자들의 친화도가 높았고(32.0%) 입원환자에 대한 친화도는 37.4%로 북구병원 중 입원환자 흡인력이 제일 높았다.

6. 남구의 C 병원은 남구환자들에게서 42.1%의 높은 친화도를 보였고 입원보다는 응급시와 외래환자에게 친화도가 높았다.

병원기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조사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본 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추후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조사시간을 길게 하여 표본수를 늘리고 구(區)단위를 인구가 비슷하도록 근접한 몇개의 동(洞)으로 묶어서 분석한다.

2. 병상규모별로 분석해 본다.

강원지역 보건소 근무 간호사의 보건간호 업무수행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주 전문대학 학술논총 제14집, pp. 89~109, 1989.

소애영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간호사가 부여된 업무를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업무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강원지역 21개시. 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가족보건계장을 제외한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86년 9월 1일 부터 1986년 12월 13일 까지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73.03%로 실제 조사대상은 11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은 30.5세로 20~39세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간호전문대학 출신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63.6%였다. 종교는 대상자의 50%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근무처는 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57.6%로 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많았다. 근무부서계는 대상자의 60.2%가 보건행정계에 속해 있었고 25.4%는 모자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결핵관리실의 경우 간호사의 2.5%만이 근무하고 있어 질적인 결핵관리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다. 임상, 보건소를 제외한 기타 기관의 근무 경력은 전혀 없었던 경우가 85.6%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74.6%가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간호사 면허만 갖고 있는 경우가 50.8%였다. 대학 졸업후 이수한 교육내용으로는 통합보건요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22.0%로 가장 많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47.4%로 전문직 성장에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희망 근무 기간의 경우 대상자의 18.6%가 평생 종사하겠다고 했으며 보건소에 근무하게 된 동기는 뚜렷한 이유없이 우연한 기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이직을 할 경우 원하는 기관은 임상 20.3%, 보건진료소 16.1%로 나타났다.

2. 업무 영역별 업무수행도

평균 업무수행정도는 2.22로 “보통 정도 수행한다”에 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의 사업이 특수보건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간호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근무부서의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항목만 응답하였고 그 이외의 사업내용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평균 업무수행정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사업계획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행정, 가족계획, 모자보건의 순이었다.

3. 업무영역의 활동내용별 수행정도

사업계획의 경우는 기록 및 보고가 3.22로 가장 높았고 산전관리의 경우 검사의뢰가 2.53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관리의 경우 분만에 필요한 물품준비를 위한 지도가 2.25,

산후관리의 경우 신생아 건강상담 및 교육이 2.49, 영유아관리의 경우 예방접종실시 및 개별보건교육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개인 중심의 가족계획 상담 및 교육이 2.82, 결핵관리의 경우 개별교육이 2.05, 질병관리의 경우 성병환자 상담 및 보건교육이 2.82, 기타 보건사업의 경우 기생충 및 간염 예방지도가 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행정사항의 경우는 사무실 정돈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정도

일반적 특성중 근무부서실과 면허 및 자격이 업무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대상자중 모자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업무수행정도가 2.51로 가장 높았고 3가지 이상의 면허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2.65로 단일 면허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업무수행정도가 높았다.

5. 근무부서실에 따른 업무영역별 수행정도

업무영역중 기타보건사업 및 행정사항을 제외한 영역이 근무부서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계획의 경우는 예방접종실이 4.30으로 가장 높았고 산전, 분만, 산후, 영유아관리의 경우는 모자보건센터에서의 수행정도가 가장 높았다. 결핵관리의 경우는 결핵관리실이 4.67, 질병관리의 경우는 진료실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자체가 각각 분산되어 효과적인 통합보건사업 보다는 근무실별 중심의 실적 위주의 특수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예방의학 위주로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배제되어 있고, 확실히 지역 특성을 무시한 사업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전국적인 보건정책에 부응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건소 조직에서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 및 기능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간호사로서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제 언

(1)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2) 지역사회간호 업무수행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감독 체계가 요구된다.

(3) 지역주민의 건강요구 파악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수행이 요구된다.